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2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신규 주문과 생산 증가로 4월 제조업 성장 — page 1
- ASEAN+3, 글로벌 무역 충격 완화 위해 역내 금융 협력 강화 — page 2-3
- 여론 조사: 1분기 필리핀 GDP 성장률 5.9%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 — page 3-4
- 필리핀 수출 시장 다변화, 높은 세금을 극복하는 방법 — 분석가들 — page 4-5
- 가격 인상 영향, 3~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 — page 6-7
- 필리핀,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혁신을 위한 10년 마스터플랜 발표 — page 7

UPCOMING EVENT

- [May 14, 2025] 2025 JFC 클락 국제 믹스 — page 8

신규 주문과 생산 증가로 4월 제조업 성장

May 03,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4월에 신규 주문과 생산 증가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선거 이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S&P 글로벌 필리핀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따르면, 필리핀의 PMI는 3월의 49.4에서 4월에는 53으로 상승했다. 이는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3월보다 개선된 수치다.

PMI 지수에서 기준선은 50으로, 50을 넘으면 전월 대비 전반적인 증가를, 50 미만이면 전반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 마리암 발루크는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올해 2분기를 견조하게 시작했으며, 생산과 신규 주문의 회복세와 함께 구매 활동도 증가했다”며 “고무적인 점은 물가 상승 압력도 억제되었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루크는 “기업들은 선거 이후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들이 두 달 연속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A WAREHOUSE complex in Meycauayan, Bulacan—one of the country’s key manufacturing hubs north of Metro Manila. The latest S&P Global PMI report showed the Philippine manufacturing sector bounced back in April 2025, driven by new orders and increased output. However, firms remain cautious, anticipating slower demand after the elections.



“Confidence within the sector has declined to its second lowest in the series history. Som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rise in activity during April was partially influenced by the upcoming elections, suggesting that post-election, customer demand may be less buoyant.”—Maryam Baluch, S&P Global

발루크는 “제조업 부문의 신뢰도는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응답자들은 4월의 활동 증가가 다가오는 선거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선거 이후에는 고객 수요가 덜 활기를 띌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4월 필리핀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는 두 달 연속으로 ‘대체로 정체’ 상태를 보였다.

또한 계절조정된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5년 3월과 동일하게 50 미만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제조업체들이 구매 활동을 늘렸으며, 대량 구매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4월에 원자재 재고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보고서는 “미처리 작업 수준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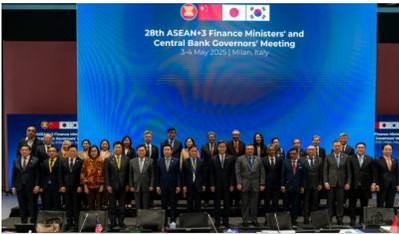
4월에는 완제품 재고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생산 후 재고의 증가세가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Image credits: MICHAEL EDWARDS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03/new-orders-higher-output-lift-manufacturing-in-april/>

ASEAN+3, 글로벌 무역 충격 완화 위해 역내 금융 협력 강화

May 06,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The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was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Board of Governors in Milan, Italy, May 4. — COURTESY OF ASIAN DEVELOPMENT BANK

이탈리아 밀라노 — 아세안+3 국가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증가하는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필리핀 또한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아세안+3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고조되는 무역 보호주의”를 지적하며, 이는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요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개최되었다.

이 지역 협의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회의는 더욱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아세안+3 비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재확인했다”고 말레이시아 재무부 차관 아미르 함자 아지잔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라프 G.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말했다.

렉토 장관은 BusinessWorld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세안과 더 많이 거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는 미국의 광범위한 상호 보복 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중 하나였으며, 베트남(46%),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가 포함되었다.

필리핀은 17%의 세율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 재무 장관들은 “우리의 현재 정책 우선사항은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변동성이 큰 글로벌 금융 환경을 포함한 단기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긴축, 성장 둔화 및 투자 흐름 약화를 언급했다.

“우리는 국제 기구들이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며,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데 회원국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금융 시장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역내 금융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시장이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의와 약속을 재확인하며,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 간의 열린 소통을 유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세안+3 공식들은 또한 재정 정책 완충 장치의 재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잘 목표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또한 국내 조건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재조정할 것이다.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 환율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출 시장과 성장 원천이 수년간 점차적으로 다각화되었으며, 이제 국내 수요와 역내 무역이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세안+3 공식들은 지역 내 금융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역 경제들이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세안+3 금융 프로세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최근에 승인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안을 언급했다.

“우리는 CMIM을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요한 요소로서 효과적인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개정된 CMIM 협정을 승인하고, 이를 발효시키기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서명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3]

ASEAN+3, 글로벌 무역 충격 완화 위해 역내 금융 협력 강화

[Cont. from page 2]

개정안에 따라, 빠른 재정 지원 시설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CMIM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FUCs)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CMIM 시설이 긴급한 지불수지 수요에 대응하고 팬데믹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회원국들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10년에 시작된 CMIM은 아세안+3 국가들과 홍콩 금융당국 간의 다자간 협정이다. 이 시설의 규모는 2012년에 2배 증가하여 2,400억 달러가 되었다.

“(납입) 자본 모델의 축소와 새로운 용도 전환 시설의 최적화는 더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속에서 CMIM을 계속 적응시키겠다는 지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 사이크 압둘 라시드 압둘 가푸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푸르 총재는 또한 지역이 CMIM 하에서 현지 통화로 개방된 비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되면, CMIM은 현지 통화 대출을 통합하는 데 의도된 이점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통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단기 유동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CMIM 외에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다른 조치들에는 아세안+3 재정 정책 교류 이니셔티브, 아시아 채권 시장 이니셔티브(ABMI), 재난 위험 재정 지원 이니셔티브(DRFI), 아세안+3 미래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올해 도입된 우선사항에는 “재정 교환 촉진, 전략적 방향 업데이트, 정책 조정 도구(PAI) 탐색”도 포함된다.

지역 경제 전망

한편, 재무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튼튼한 거시경제 기초에 힘입어, 지역은 2025년에 약 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부의 어려운 상황, 특히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AMRO)의 최신 지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역의 경제 성장은 올해 4.2%, 2026년에는 4.1%로 예상된다.

AMRO는 필리핀 경제가 올해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6.5%)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로 예측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아세안+3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성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한편, 물가는 2025년에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5/06/670419/asean3-to-ramp-up-regional-financial-cooperation-to-cushion-global-trade-shocks/>

여론 조사: 1분기 필리핀 GDP 성장률 5.9%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치적·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를 촉진

May 05, 2025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는 세금에 의한 외부 역풍에도 불구하고 1분기 동안 더 빠르게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대부분은 온화한 인플레이션 덕분에 소비자 지출이 증가한 국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즉 경제 내에서 창출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합은 3월까지의 3개월 동안 5.9%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콰이어러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12명의 경제학자들의 중간 추정치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통계청(PSA)이 5월 8일 발표할 예정인 수치가 확정되면, 지난해 4분기의 5.2% 성장보다 더 빠르고, 2024년 같은 기간의 5.8% 성장보다도 빠를 것입니다. [Cont. page 4]



Robust consumer spending powered the Philippines'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Photo by Ted ALJIBE / AFP

여론 조사: 1분기 필리핀 GDP 성장률 5.9%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치적·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를 촉진

[Cont. from page 3]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중간 추정치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르코스 행정부의 목표인 6%에서 8% 사이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크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점은, 역사적으로 GDP의 약 70%를 차지했던 소비자 지출이 지난 분기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매력

분석가들은 온화한 인플레이션 덕분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차입 비용을 인하할 수 있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세금 부과로 인한 경기 침체 위협 속에서도 가계 소비를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소비자들은 고용 증가와 지속적인 송금 유입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 기간 동안 광범위한 구매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Union Bank of the Philippines의 수석 경제학자인 루벤 칼로 아순시온은 말했습니다. 그는 1분기 GDP 성장률이 5.7%로 정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ikonomia Advisory & Research Inc.의 경제학자인 레이니엘 매트 에레체는 같은 견해를 밝혔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출이 경제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1분기 회복은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적 노력의 증가로 예상되며, 더 많은 인프라 지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시즌의 영향으로 더 높은 정부 지출이 예상됩니다."라고 에레체는 말하며 5.7%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관세 충격

하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높은 관세 위협이 필리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출의 미미한 성장이 1분기 GDP 증가에 기여했지만, 수입 또한 급증했으며 이는 현지 제조업체들이 관세 적용 전에 구매를 미리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출' 항목에서의 부담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ANZ Research의 동남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인 산제이 마투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1분기 GDP 성장률이 5.1%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UnionBank의 아순시온은 글로벌 관세 공세로부터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1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올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일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BSP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통해 높은 실질 금리 설정을 완화하고, 트럼프 2.0 관세 인상 속에서도 성장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3664/poll-faster-5-9-ph-gdp-growth-seen-in-q1](https://business.inquirer.net/523664/poll-faster-5-9-ph-gdp-growth-seen-in-q1)

필리핀 수출 시장 다변화, 높은 세금을 극복하는 방법 — 분석가들

May 06,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경제 분석가들은 필리핀 산업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같은 단일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무역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가진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의 선임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는 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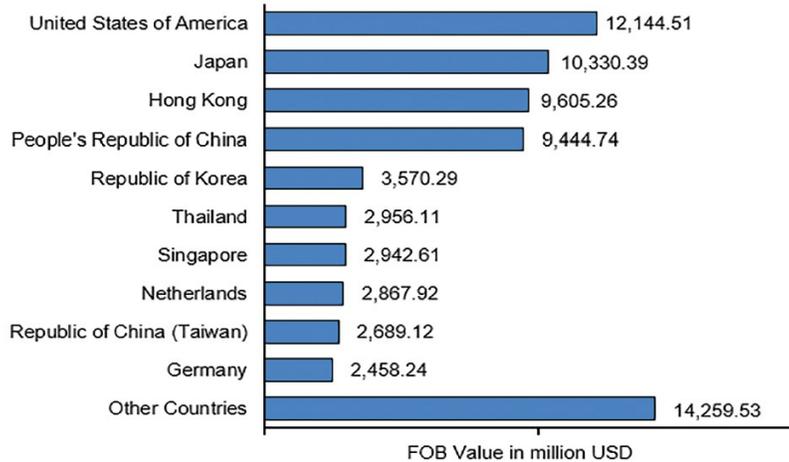
‘과도한 의존 피하기’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필리핀 수출업체들은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Cont. page 5]

필리핀 수출 시장 다변화, 높은 세금을 극복하는 방법 — 분석가들

[Cont. from page 4]

Exports to major partner countries



Source: PSA

리베라는 필리핀은 이제 ASEAN, 중동, 유럽연합(EU)과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은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EU와의 일반화세금혜택(GSP) 플러스 협정에 따른 우대 접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필리핀 수출품의 6,000개 이상의 세금 항목에 대해 제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리베라는 농업, 전자, 의류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과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

별도의 인터뷰에서, 리잘 상업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필리핀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체결한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의 수출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CEP은 ASEAN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묶고 있습니다.

리카포트는 필리핀은 중동, 유럽, 미주 지역의 시장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산물, 특히 열대 과일과 코코넛 오일 등이 이러한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제품 외에도 더 많은 국가와 수출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필리핀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으며, 필리핀은 1,214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는 필리핀 총 수출액 7,327억 달러의 16.6%를 차지합니다.

2024년 필리핀의 주요 5개 교역국은 일본(103.3억 달러, 14.1%), 홍콩(96.1억 달러, 13.1%), 중국(94.4억 달러, 12.9%), 한국(35.7억 달러, 4.9%)이었습니다.

2024년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기기 390억 달러, 기타 제조품 46.8억 달러, 기타 광물 30억 달러, 점화선 세트 24.5억 달러, 코코넛 오일 22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교역 회의 진행 중

필리핀은 미국과의 상호 세금에 대한 또 다른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DTI가 밝혔습니다.

“협상은 하나의 회의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DTI의 마. 크리스티나 로케 장관이 문자로 전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5월 2일에 열린 미국 무역 관계자들과 필리핀 대표팀 간의 협상에 이어 진행됩니다. 필리핀 대표팀은 로케 장관, 대통령 경제 및 투자 보좌관 프레데릭 고, 필리핀 대사 마누엘 로무알데즈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 보좌관은 이전에 회의가 “매우 잘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협상팀은 일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논의는 양국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필리핀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양측의 협정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diversifying-ph-export-market-a-way-to-beat-high-tariffs-analysts/?utm_source=i200to&utm_medium=on_site_interactions&utm_campaign=Exit_Intent_Recommendations

가격 인상 영향, 3~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

May 06,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워싱턴의 세금 발표로 인한 '공급망 차단점'으로 인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상품 가격 인상이 느껴질 수 있다고 공급망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아직 시스템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인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품 비용 상승, 국가 간 보복 세금 부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조달 및 공급 기관(Pasia) 회장인 찰리 빌라세뇨르는 최근 열린 2025 필리핀 물류 정상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공급망의 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계속되는 불확실성 및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의 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단계에 있든, 많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빌라세뇨르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품 비용 상승이 그가 '불리핑 효과'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가들이 불안해하면 멈춥니다. 멈추고 기다리면 공급망이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불리핑 효과가 발생합니다."라고 빌라세뇨르는 말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에서 고객까지, 일부는 더 많이 사거나 전혀 사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국가에서 제조 공장을 재배치하는 추세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장을 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을 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돈이 들고 운영을 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라고 Pasia 회장은 언급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은 어디선가 회수해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들입니다."

또한 필리핀 물류 정상 회담 2025에서 JG Summit Holdings의 조달 고문인 알란 수르포사는 워싱턴의 세금 발표와 관련된 최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공급망 '차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미리 예약하는 것이 차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망에서 특정 차단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차단은 공급업체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생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수르포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차단점은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주문하고 이를 창고에 보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차단점은 많은 경쟁자들이 같은 것을 주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적 지역과 해운선에서 많은 차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오슝, 홍콩 및 다른 국가들에서 많은 환적 차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수르포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차단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선적을 통합할 수 있는 큰 회사나 대형 운송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래서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운임을 협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차단점은 마닐라 항구에서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마닐라에서 많은 선박들이 하역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ICTSI와 파트너십을 맺고, 모든 크레딧과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적이 도착했을 때 ICTSI나 해운선이 선적을 보류할 이유가 없고, 바로 창고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라고 수르포사는 말했습니다. [Cont. page 7]



Logistics and industrial sector can boost a country's competitiveness that is a vital element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가격 인상 영향, 3~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

[Cont. from page 6]

그는 네 번째 차단점은 창고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용량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인 차단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추적이 필요하고, 이를 운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며, 마닐라 수도권에서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수르포사는 말했습니다.

수르포사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망 시나리오는 보통 무역 전쟁 중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지역 기업들이 “경계하고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공급망 시나리오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여러 해 동안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06/price-hike-impact-seen-delayed-by-3-to-6-months/>

필리핀,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혁신을 위한 10년 마스터플랜 발표

May 05, 2025 | Jon Viktor D. Cabuenas | GMA Integrated News

경제기획개발부(DEPDev)는 월요일에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 혁신 및 노동력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활용될 10년 노동 시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rabaho Para sa Bayan"(TPB) 계획 2025-2034는 시장 접근 확대 및 촉진, 우선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비즈니스 용이성 보장,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기술 채택 촉진 등의 우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기업 기반 교육을 촉진하고, 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비공식 부문, 소규모 창업자 및 중소기업(MSE)의 졸업을 장려하는 등 노동 수요를 미래에 대비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를 개선하며, 해외 필리핀인(OF) 재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참여를 증대시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통합하여 진정으로 모든 필리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통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으로 우리 임무를 강화합니다.” 라고 DEPDev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이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발리사칸은 자동화, 디지털화 및 새로운 기술들이 경제 환경에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인구 변화의 압박이 필리핀 노동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추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필리핀 근로자들이 이러한 변화하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적응적인 정책의 시급함을 강조합니다.”라고 발리사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의미 있고 질 높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이 ‘마타탁, 마긴하와, 판타탁 나 부아이(강건하고, 편안하며, 안정된 삶)’를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월에 15세 이상 필리핀 국민 중 194만 명이 실업 상태였으며, 이는 3.8%의 실업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4년 2월의 180만 명보다는 높지만, 1월의 216만 명보다는 낮습니다.

2월 동안 4915만 명의 필리핀인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96.2%의 고용률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람들 중 486만 명은 추가 근무 시간을 원하거나 추가 일을 하기를 원하거나 더 긴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BM,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45014/ph-launches-10-year-masterplan-for-job-creation-labor-market-transformation/story/>

UPCOMING EVENT

ORGANISED BY



2025 JFC CLARK INTERNATIONAL MIXER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2,800

Wednesday, 14 May 2025
6:00 PM - 9:00 PM
Clark Marriott Hotel
5398 Manuel A Roxas Highway Zone, Clark Freeport

조인트 포린 챔버스(JFC)는 2025년 5월 1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클락 마리엇 호텔에서 JFC 클락 국제 믹서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합니다.

클락에서 열리는 두 번째 JFC 네트워킹 이벤트인 이번 국제 믹서는 다양한 배경과 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서 형성된 관계는 논의와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JFC 네트워킹 이벤트는 200명 이상의 참석자를 끌어들이며,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 비즈니스 및 외교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 그리고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사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KCCP 비서실(전화: 8885-7342)이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LEAGES	PACKAGE 1 Php35,000	PACKAGE 2 Php25,000	PACKAGE 3 Php15,000	PACKAGE 4 Php10,000	RAFFLE PARTNER (GCs/Items worth at least Php 10,000)
Set-up space (1 IBM table will be provided)	✓	✓			
Option for maximum 1-minute (60sec) AVP in the partners' loop during event	✓		✓		
Inclusion of company logo in all marketing collaterals and invites to foreign chambers (300 dpi jpeg file)	✓	✓	✓	✓	✓
Option to display one (1) banner at designated area at the venue (standee/roll-up banner only)	✓	✓	✓	✓	✓
Inclusion of company logo in the partners' loop during event	✓	✓	✓	✓	✓
Recognition during the program	✓	✓	✓	✓	✓
Member's rate for additional registered attendees	✓	✓	✓	✓	✓
Copy of attendees' database (with consent)	✓	✓	✓	✓	✓
Complimentary entry to the event	3	2	1	1	50% discount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